

# 한국 전통건축美와 전통가구에 내재된 자연美의 유기적 특징 연구<sup>1</sup>

임광순<sup>2</sup>

## Study of the organic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traditional aesthetic of architecture and the natural beauty being intrinsic in traditional furniture<sup>1</sup>

Kwang Soon Rim<sup>2</sup>

### ABSTRACT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been carried out in the manner that it harmonized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s and never disturbed them in the scale which did not overwhelm the nature, based on the view of architecture predicated on Yin Yang School. The exposed grain of the wood like pillar, hinge and house rafte, the linear expression of the construction material and the formation between the window and door monopolizing the front side presented a harmony with the nature showing the linear structure.

Furthermore the ceiling is low due to the sit life style thanks to the ondol (Korean under-floor heating system and the furniture was made in simple manner to utilize the space as large as possible, for the interior was narrow and close, and also the furniture placing in the middle of the room was movably manufactured to improve the room space.

Like this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was close associated with the low height and simplicity and harmonized with the blank of the wall accordingly, and it characterized linear & planar natural beauty focusing on the simple and refined unique beauty, because it was made in a good harmony with the interior utensils.

This study has presented that the organic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aesthetic of architecture and the natural beauty being intrinsic in traditional furniture have a mutual relation on the basis of not only the visual recognition, also the aesthetic of naturalism made of the natural material, the constructional naivety as a frame method and the linear & planar formative beauty shown in appearance.

**Keywords** : Naturalism. Furniture, traditional architects, Metaphor.

---

1. 논문접수: 2009. 05. 11.; 심사: 2009. 06. 05.; 게재확정: 2009. 09. 15.

2. 경민대학 가구인테리어디자인과, Department of Furniture Interior Design, Kyungmin College, Gyeonggi-do, Korea, 480-702. E-mail: galleryim@yahoo.co.kr.

## 1.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자연이란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아니한, 우주 사이에 저절로 생성된 그대로의 현상이 지질 적 환경과 조건으로 정의된다. 자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소재로서 무한한 요소를 지니며, 인간은 그러한 자연 속에서 미를 발견 하고 그 체험을 미(美)로 표현해 왔다. 또한 인간이 자연 활동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 식, 주도 주관적으로 표현되는 가치로서의 대상이며 그 중 주거는 필연적인 대상이다.

한국 전통건축은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건축 관의 영향으로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은 그 주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자연을 억압하지 않는 규모로 건축되어 졌다. 이것은 자연재료의 사용과 자연원리의 자연스러운 표현 그리고 건축 구성의 구조 순결주의는 자연과의 일체감이 얻어지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 특성으로 외부공간은 기둥, 도리 등의 목재가 갖는 노출된 나뭇결과 구조제의 선적인 표현, 처마의 석가래 등이 갖는 선적인 리듬, 그리고 입면을 대부분차지하는 창호 등의 살 짜임으로 건물 전체가 선적인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부공간은 외부공간과 달리 대부분 벽지나 천정 지로 가려지고 대청의 경우와 같이 설사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재들은 벽체부와 함께 하나의 면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 실내공간에 원만하고 통일된 질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온돌로 인한 평좌생활은 비교적 좁은 공간으로 대부분 가구는 천정 고의 절반정도 아래에 놓여 그 하중을 하부에 뒹으로서 가구에 의해 압도되는 일 없이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처럼 가구들의 낮은 키와 간결함에 따라 생기는 벽면의 여백과도 조화되고 또 실내의 기물과도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었다.

한국 전통건축과 전통가구는 자연주의적 배경으로서 단순하고 정선된 특유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되었으며, 자연과 조화되어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근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건축미와 전통가구에 내재된 자연미의 유기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 범위는 현존하는 한국 전통건축과 조선조가구를 바탕으로 정하였으며 전개방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형태가 어떠한 상징성과 유기적 표현 방법으로서 창조적 활동으로 인식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한 자연주의 개념들을 각 시대적 학자들은 미적 개념으로 정의를 내렸는지 고찰하며, 그리고 한국 전통건축과 전통가구를 통하여 재료, 구조, 조형미적 기준으로서 자연미의 유기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자연 형태의 조형원리와 유기적 표현형태

### 2-1 자연형태의 조형원리

자연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놓여있고 공존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으며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고 조형의 근원이 된다. 태양의 빛, 숲과 구름, 달, 바다 등 모두가 대자연 속에 있는 소재들이다. 자연은 인간의 조형표현 수단으로서 미의식과 시지각적인 방법으로 대상의 이

미지를 변형하여 재구성하는 독창적인 형상물이다. 이로 인한 자연형태는 인간에게 창조적인 정신에 있어 자연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의한 형태로 제작한다.

또한 자연형태는 자연법칙에 생명을 지탱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아름다움의 대상인 미적 요소로서 사물, 행위, 사상, 언어, 마음 등 형용하는 낱말로 만들어지며 이를 통한 미는 자연의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인 절대 대상이 자연으로부터 나타나며 인간은 여기서 미적 존재를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자연의 형태와 조형과의 관계는 자연계의 형태발견과 구체적인 적응성의 발견에 있으며 이는 추상적 개념, 미적특성, 구조적 특성, 기능적 특성에 대한 관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듯 자연형태는 자연의 유기적질서 안에서 자신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구조에 맞게 변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각 요소는 어느 특정한 요소의 치우침이 없이 서로 통합되어 항상 변화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자연의 형태로부터 끊임없이 조형의 원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 2-2 자연 형태의 유기적 표현형태

자연의 유기적 형태란 바로 생명 그 자체와 결부된 형태로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첫째, 유기적형태란 근본적으로 유동체이다. 원형질로 구성되어있는 세포들은 자체가 최소의 표면구성을 위하여 구조 체로 이루어가면서 그 세포들이 정확하게 구(球)적인 형태일수는 없지만 구적인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만물형상은 가변적이어서 시간과 공간 또는 모든 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 운동하는 현상의 전체를 이루며 유기적이라 살아있음을 뜻하며 생성, 변화, 소멸하는 가운데 영원한 기능성과 본질이 법칙과 질서의 근본적인 원리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형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 표현이라는 사실이다. 유기적형태의 공간적 형상은 그것이 다른 부분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크기에 연관된 상호 연관적인 결과인 것이다(최 1995).

이러한 유기적 형태의 표현방식에 먼저 직유적 표현은 유기적인 가운데 아름다움을 자기만족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향수 한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어떤 감각적 대상 가운데서 나 자신을 이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유와 상징적 표현은 본질적으로 한 대상이나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비유법을 말하며 은유를 뜻하는 “메타포(metaphor)”라는 말의 어원은 희랍어의 *metaphora*에서 온 것으로, 변화를 통한 동작을 의미하며 이때 신체가 아닌 “의미의 동작”을 말한다. 은유에 기재하는 의미의 동작은 어떤 비유법보다도 은유에서 가장 뚜렷하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며 은유에서의 의미는 전이가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두 개념의 영역 또는 의미 영역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은유란 일단 서로 다른 두 대상이나 개념사이의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찾아내는 비유법이라 할 수 있다(김 2005).

상징적 표현은 낭만주의 운동의 일부로부터 생겨났으며, 낭만주의와 비교해보면 좀 더 상상적이며 그 상상력을 강조시켜주기 위하여 상징적인 형태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추상적 표현은 추상이란 말이 라틴어의 *abs-trah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대상의 전 구성요소 가운데서 어떤 것을 잘라내고, 밖으로 끌어내고 또는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어떤 자연의

유기적 대상을 그 전체상에서 생략하고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상이라고 하며 이과정의 작업을 추상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연원형의 기초가 되어 있는 형태를 앞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다양한 표현방식으로부터 자연형태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유기적 표현요소의 참된 표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 3. 한국 자연미의 특징

#### 3-1 자연주의 개념

자연주의의 뜻은 철학용어로서 일체의 자연(nature)에 귀결시키고, 이것을 벗어나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적 또는 범신론적 입장을 뜻하며, 자연주의(naturalism)는 “자연” “자연적인 것”을 곧 연상시키기 때문에 의미와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자연주의의 변천을 간략하게 보면 고대의 자연주의는 인공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보다 열등하다는 관점에서 당시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사용에 있어서 오늘날과는 반대의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중세의 자연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성서적인 견해가 첨가된 합리적 자연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종교적 중요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적인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근대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의 발견의 시대”라고 표현되는데 자아의 지각과 실증주의적 과학성이 모든 개념을 신 중심에 바라보던 중세의 개념들로부터 새로운 변혁을 가져왔다.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자연과 경쟁할 수 있고 자연을 능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후 인류는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 문명을 구가해옴으로서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깨트리는 자아유린의 역사가 시작 되었다(김 2001).

한편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유기론 적 전통 계승에도 불구하고 근대이후에는 기계론적 자연관에 치우쳤으며, 산업혁명 후기에는 자연정복의 모습을 노출시키며 생명가치를 박탈당한 자연은 완전히 인간의 손에 의해 변형되게 되었다.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대에는 원시 자연과의 교감으로 인하여 왜소해진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고, 자연에 대한 예찬과 탐닉으로 새로운 자극을 불어 넣으며, 자연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현상을 관찰, 분석, 자극함으로써 과학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19세기까지 단편적으로 고찰된 자연주의는 하나의 맥락으로 일관되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나 철학, 문학, 역사로 시대적 가치관의 변천과 함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변해오고 있다.

#### 3-2 한국 자연미의 특징

우리나라 산 형태는 산이라고 지각되기 보다는 산과 산의 중첩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인식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접하는 산은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처럼 지각된다. 그리고 이처럼 울타리로서 지각되는 산은 우리의 자연친화 사상이나 우리 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지형자체가 우리 의식에 매우 안정되고 조화로운 균형감을 제공해 왔으며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

는 안정감 있는 자연의 지형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주의적 미의식을 형성 시켰을 것이다. 또한 인위적인 모든 것은 결국 자연으로 귀착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며 미적표현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자연주의적 미의식에 그 바탕을 두며 선에 담긴 미에서도 인공을 회피하고 자연적인 것에 미의 기준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미의 형성을 보면 고대 단군신화에서는 경천사상과 삼신일체 사상이 무속신앙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인간의 마음이 본래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여 음악, 예술의 경우 음악과 연주자가 하나가 되어 무아지경에 이르는 예술적 표현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세기 이르러 왜래 문화인 유(儒).불(佛).도(道)가 들어오면서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물질문화의 영역에 지대한 영역에 끼치게 되는데 우리의 고대문화와 융합되면서 하나의 정신문화로 발전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유가에서는 문(文)을 중시하는 한편 문질彬彬(文質彬彬)이라는 미의식과 함께 중화미(中和美)를 이상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자의 예(禮)정신은 형식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아름다움으로 보았다. 도가에서 노자와 장자는 최고의 미로서 소박미와 자연미를 꼽았으며 불교는 미적 표현의 예로서 석굴암은 외형과 내면의 미를 함께 융합한 최상의 종교 조각으로 선의 아름다움과 단순미의 극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늘과 같이 하려는 한국인 마음의 본질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유. 불. 도 사상과 더욱 가깝게 삼교를 수용하면서 그 속에 내재한 중화미(中和美)와 소박미(素朴美), 자연미(自然美)등이 전통적인 한국인의 미의식과 어울리면서 더욱 그 특징을 드러내게 되었다.

근대에 여러 학자들로서 에블린 매쿰(Evelyn McCune)여사가 그의 “한국 미술사”에서 지적한 한국미의 특징은 첫째로 “한국인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 보수성”과 둘째로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집약될 수 있다.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은 개경(開京)에 다녀온 보고서 속에서 사신들의 숙소인 순천관(順天館)의 모습을 “동쪽자리의 남쪽 중앙에는 청풍각(淸風閣)을 지었고 서쪽방향은 산줄기에 의지하여 향림정(香林亭)을 세웠는데 대청을 열면 산을 마주보게 되고 맑은 물이 휘감아 돌고, 큰 소나무와 이름 있는 꽃들이 울긋불긋 뒤섞여 빼곡하다”라고 표현했으며 이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전통건축과 정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조 2004).

야나기 무네키치는 “조선과 그의 미술”에서 “중국예술도 유럽예술도 고대로 거슬러 갈수록 자연에 무심한 신앙이 보이고 시대와 더불어 자연의 반역이 나타나는데 비해 조선의 도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특수한 예”라고 말했다

고유섭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미를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으로 표현했으며 그가 주장한 논설에 “보통민가도 추녀의 변양전기(翻仰轉起)를 형성할 때 작목을 굴곡지게 기교적으로, 계획적으로 깎아하지 안이하고 이미 자연대로 굴곡진 목재를 그대로 엮어 만들어 낸다. 또한 우리가 능에 집을 짓고 장벽을 둘러쌓을 때 자연의 지형대로 층절(層節)지게 쌓는다. 그곳에 자연에 대한 강압이 없고 자연에 대한 순응이 있는 것이다”라고 기술하면서 “흙냄새”가 짙은 “구수한 큰 맛”이라고 표현했다(김 1968).

이와 같이 한국 자연미의 특성은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욕망이나 편견이 없는 마음의 본성을 바탕으로 소박함과 절제와 중용의 개념이 더해진 단순미는 5천년 한국역사와 한국인이 축해왔던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 4. 한국 전통건축미와 전통가구에 내재된 자연미의 유기적 특징

### 4-1 물성에 의한 유기적 특징

전통건축에 있어서 자연재료의 사용은 재료가 갖는 본성이 잘 지켜짐으로서 그 속에 내제된 본연의 아름다움이 변질되지 않고 잘 지켜져 우리나라의 상태를 자연미와 소박미라 할 수 있다. 소박미는 소박한 상태에 쓰임새, 형상, 구성, 상징성, 축조 등이 다른 요소들과 잘 어울려 건물의 전반적 가치와 의미로 함께 어우러질 때 얻어진다. 이렇게 얻어지는 자연 재료의 소박미는 건물의 균형감과 조화를 주며 내재적 미의 한 형태로 표현된다.

한국 전통건축의 단순미는 질박미 또는 자유분방의 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돌이나 목재 같은 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가능한 자연 그대로 사용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Fig.1.2.3) 대표적으로 우리 옛 건축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대들보들이 휘어진 나무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나무가 부족했던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법적으로 흰 나무가 힘을 더 많이 받는다는 계산 하에 목재를 사용했다. (Fig. 4.) 또한 우리건축의 투박, 생략, 그리고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성향이 크게 작용해서 형성된 전통적 미의식으로서 기둥, 보 등의 주재료들과 기타 부재료들도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재목들을 건축재료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연재료의 자연과 융합성이라는 것은 초석, 기단 쌓기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석부분을 평평하게 다듬지 않고 울퉁불퉁한 면에 맞춰 기둥밑면을 깎아 내어 서로 맞물리게 하는 이른바 “그랭이 질”(Fig. 5.)이 주종을 이룬다(이 2001). 대웅전 네모서리에 기둥으로 굵은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주춧돌로 자연산 초석을 사용한 전통 건축에서 투박함과 질박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자연을 가능한 손대지 않고 그대로 살리려는 한국인의 자유분방한 미의식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Fig.6)

또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은 한국 전통미의 특징 중 하나이며 건축에 나타나는 무늬 또한 동일하고 그 나타나는 건축의 부위가 다음으로 손쉽게 변화하여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자무늬는 창호의 살 짜임새로도 사용되어지고 실내에 비치되는 가구의 장식무늬로, 옥외 난간 궁창부의 장식무늬로, 굴뚝과담장의 장식무늬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통일성을 이루며, 장소를 달리하며 변화를 가져오는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Fig. 12.)

한국 전통건축에 사용되어진 자연미적 재료와 마찬가지로 전통가구에 사용된 재료는 은행나무, 호두나무, 가래나무, 밤나무,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피나무, 벗나무, 참죽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릅나무 등 많은 수종을 들 수 있는데 그 또한 자연스러운 목리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하였다(Fig. 7.). 이 나무들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느티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은 결이 아름다워 판재로 많이 쓰였는데, 무늬 결을 좌우 대칭으로 배열하여 보다 더 안정감을 준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연적으로 먹이 들어 있는 먹감나무는(Fig. 8.) 독특한 목리를 살려 장롱이나 문갑(Fig. 9.) 등에 자연미를 유감없이 발휘를 한다. 은행나무 가래나무, 피나무 등은 비교적 넓은 판재를 구할 수 있으며 얇게 재제하여도 터지지 않아 소반이나 장 종류의 판재로 많이 쓰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은행나무는 탈력과 무게가 가벼워 운반에 편리하며 특히 좁이나 벌레가 먹지 않아 소반재질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Fig.10) 가래나무, 배나무, 참죽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하여 골재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탁자류 등에 기둥재로서 힘을 받기에 충분하고 쾌적한 맛을 풍긴다.

오동나무는 가볍고 얇게 썬다 터지지 않으며 견습조건이 용이하여 의복, 책, 서류 등을 보관하는 가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표면을 인두로 지진 후 벗짚으로 문질러 단단한 목리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낙동법으로 표면처리를 하면 광택이 없고 묵직한 질감을 풍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검소한 분위기로 사랑방 가구에 널리 애용되었다.(Fig. 11.) 소나무와 잣나무는 어느 곳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종으로 기름기가 많고 결이 곱고 깨끗하여 골재와 판재로써 널리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곱은 결로된 단단한 판재들은 장롱의 뒷널과 층널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사용되었으며 곱은결의 골재들은 찬탁, 찬장 등의 기둥이나 쇠목같이 힘이 많이 받는 곳에 사용되었다(이 2001).(Fig. 12.)

이처럼 전통건축과 전통가구는 우리나라의 풍토를 배경으로 하여 민족독자의 생활감정 속에서 용과 미를 살려 발달되었으며, 목재가 지니고 있는 물성자체를 가지고 자연미를 그대로 표현하므로 과다한 장식을 피하고 간결한 선, 명확한 면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만들어 낸 것은 우리민족의 순박성과 자연미가 잘 표현된 유기적요소라 할 수 있다.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aesthetic of architecture according to material					
					
Fig.1. Pine.	Fig.2. Native rock.	Fig.3. Native rock.	Fig.4. Haeinsa.	Fig.5. Granggil.	Fig.6. Gasimsa.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furniture according to material					
					
Fig.7. Wood sorts.	Fig.8. Persimmon.	Fig.9. Stationery chest-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ig.10. Naju dining table-The National Folklore Museum.	Fig.11. Three-storied bookshelf -Hoam Art allery.	Fig.12. Cupboard -Hoam Art allery.

#### 4-2 결구로서의 유기적 특징

구조순결주의는 한국 전통건축에서 자연재료의사용, 입면구성에 나타나는 추상성으로 건물의 골격을 역학적으로 필요한 최소로만 세우고 일체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구조 부재자체를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한다. 그 위에 덧붙여지는 표면장식이나 구조부재의 단부를 조각 처리하는 것과 같은 모든 장식을 절제하였다. 나아가 구조 방식도 기둥, 보, 서까래, 지붕 등 꼭 필요한 요소만 구성하며 부재의 크기와 양도 구조적 안전성에 필요한 선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상은 절제하여 사용하였다. 한 예로 누각의 구조순결주의는 자연을 건물 속으로 까지 끌어들이 건물 속에 넘쳐흐르게 하며 혹은 건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한국 전통건축의 구성을 보면 먼저 초석, 기둥, 공포, 지붕 등으로 되어 있으며 초석은 주초라고도 하며 다른 구성요소들처럼 지상에 나타나는 시각적 크기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으로 민족적 정서에 따라 많은 조각과 장식이 들어가기도 한다. 초석은 의장 면에서 크게 분류하면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연석 초석과 가공석 초석으로 사용하며 목조건물의 지면으로 전달하는 기초석재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적인 기능 외에도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나 병충해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부재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진 2001)(Fig. 13).

기둥은 건축의 뼈대이며 지붕의 하중을 기단에 전달하고 안전한 균형과 비례를 이루어, 오래도록 유지하는 역학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음양오행사상의 건축관에서는 “지붕은 하늘이고 양이며 기둥은 땅으로 음”이라 하였다. 기둥은 수직적요소로 수평선을 이루는 지붕의 마루선, 처마선, 도리, 기단과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을 갖는다. 또한 기둥의 높이와 간격에 의해 건물의 크기가 결정되며 기둥의 높이나 형태는 그 시대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한다. 기둥의 형태별로 보면 원형주와 각형주로 나누며, 이를 세분화하면 원통주, 민흘림주, 배흘림주, 각형주, 육각형주, 팔각형주 등으로 나뉜다. 원형주는 궁궐, 사찰, 관아 건축등 주로 권위건축에 사용되었고 각주는 중류층이상 저택이나 궁궐건축에서 정전이나 중요한 내전을 제외한 전각에 사용되었으며 서민층에서는 단면이 적은 통주 등을 사용하였다.(Fig. 13.14.) 또한 수직재로서 층고가 높은 건물에 기둥의 길이가 짧을 경우 두개의 부재를 접합하여 사용하며 이때 이루어지는 결구를 수직재로서 기둥과 기둥의 결구라고 한다(Fig. 14.15).

공포는 한국, 중국, 일본등지의 목조건축에 나타나는 조립부분으로 기둥 상측에서부터 주두, 소로, 첨차, 두공 등이 조합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축에 구성되어 지붕의 하중을 분산 혹은 집중시켜 안정감을 주는 역학적 기능과 내부공간을 확장 시키고 건물의 높이를 높여 웅장하고 화려한 멋을 내며 강우량과 일조량의 조절을 위해 처마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구조적 역할을 한다.(Fig. 16.)

벽체는 목조건축의 입면을 형성하는 요소로써 부재가 강하게 노출되며 기둥과 보 사이에 벽체나 창호가 설치되어 간결하면서도 강한 구조미를 구성하고 있다.(Fig. 17.)

한국 전통가구는 실용에 충실하면서도 최대한의 세련된 구조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실용에 부담을 주는 장식이 덧붙여질 수 없고, 또 창의에 욕심을 부려 기본구조를 그르치지 않고 있다. 가구양식은 장소와 실내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데 우리나라의 주택의 실내에는 습기가 많으며 겨울에는 온돌난방으로 인해 따뜻하고 건조하다. 나무는 습기가 많으면 팽창하고 따뜻하고 건조하면 수축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나무의 수축팽창으로 인한 가구의 손상에 대비하여 가능한 못이나 접착제를 쓰지 않고 뼈대, 골조에 판재를 끼우는 특수한 결구 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간결한선과 명확한 면으로서 구조주의적 측면과 연관된다(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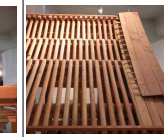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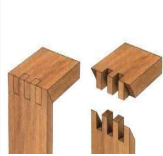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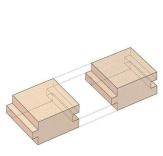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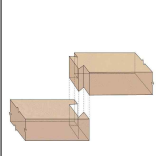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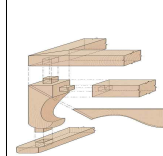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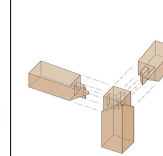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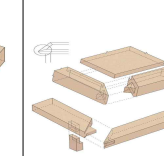
그래서 대부분 그 맞춤이 천판, 기둥, 판, 마대(죽대)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천판은 가구의 상부를 덮는 판재를 말하는데 그 짜임새는 통판맞춤, 개판맞춤, 두루마리형 맞춤 등으로 구분한다(Fig. 24.). 판의 구조는 탁자류의 층널과 장, 농, 반닫이류의 옆널 등에 사용되며 판 맞춤에는 통판축맞춤, 사개연귀맞춤, 통판연귀맞춤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사방탁자, 장 같은 층널을 물리는 구조에는 맞짜임이나 연귀짜임으로 결구한다(Fig. 23.). 마대와 죽대는 가구다리부분을 칭하는 말로써 장, 농 또는 반닫이 등의 하부에 위치하면서 가구전체의 하중을 견디어야하기에 단단한 재료로써 사용하였다. 전통가구의 형태는 대부분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하여 마대는 의도



적 곡선으로 이루어져 장식적인효과로서 실내장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Fig. 22).

한국 전통건축의 지붕틀과 전통가구의 천판을 비교해보면 결구방식에서 유기적 특징은 사괘 맞춤과 반턱맞춤, 통끼움 등이 있다(Fig. 18.19.24.). 또한 전통 건축의 벽체와 전통가구의 판재를 분석해보면 각종 쪽매이음과 짜임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Fig. 17.20.), 특히 기둥 역할을 하는 수직재는 짜임과 이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유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음에는 맞장부 이음, 맞댄이음, 주먹장이음, 쪽매이음 등이며, 짜임에는 턱짜임, 사괘짜임, 장부짜임, 빗턱짜임, 막장부촉짜임, 장부맞짜임, 쌍장부맞짜임 등이다(Fig. 14.15.20.21.). 초석부분은 축장부 이음과 맞 짜임 등으로 나타난다.(이 1995)

그러므로 한국 전통건축 결구와 전통가구 구조와는 기본적으로 상통하며 다쓰러져 가는듯한 목조건물이 오랫동안 끄떡없이 지탱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기둥과 도리를 사괘물림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가구에서도 금속 재료를 첨가하지 않고도 견고하게 지탱하는 짜임과 이음 형태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간결한 선과 단정하고 쾌적한 면 분할 속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쓰임새와 재료의 성질에 각 부위별 받는 응력에 대하여 구조역학은 물론 시각적 효과를 감안한 격조 높은 기법으로 제작되어 대부분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 튼튼한 맞춤기법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므로 내적으로 충실성과 외적으로의 아름다움을 한층 높여주며 안전하며 견고한 결구에 의해 제작 되었다.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aesthetic of architecture according to joint method					
					
Fig.13. Pillar.	Fig.14. Wall-crossbeam.	Fig.15. Dovetail joint.	Fig.16. Pillar-supporting wood.	Fig.17. Parquet-inlay.	Fig.18. Roof-rafter.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furniture according to joint method					
					
Fig.19. Pillar tenons.	Fig.20. Parquet-inlay.	Fig.21. Pole plate with a fistshaped head.	Fig.22. Load-supporting formation.	Fig.23.45.formation.	Fig.24. Chunpan-Gapan joint.

<<http://gagu.culturecontent.com>>

### 4-3 조형미의 유기적 특징

자연스러움이란 본래 자연의 말뜻으로 “스스로자(自)” “다움연(然)” 이며 동시에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준말이기도하다. 무위자연은 자연에 나타나는 조화의 비밀로 자연은 무한대로 다양한 수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지지만 이것들이 욕심을 부리거나 각자의 영역을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

키는 법이 없이 항상 대타협으로 이루어낸다. 건물도 마찬가지이다. 건물다움이란 건물의 본성에 알맞은 상태로 본래의 물성을 잘 지켜 인공적인 훼손을 최소화 하고 구조 법칙을 충실히 좇아 꼭 필요한 골격만 축조한다(Fig. 25.26.). 외관, 동선 등은 실내의 생활살 이를 잘 반영하는 적절한 장식과 공간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도록 하며 건축, 실내, 가구, 공예, 조경 등 스케일에 따라 유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임 2005)(Fig. 27.28.). 이것은 자연을 이루는 우주 만물 속에 큰 것과 작은 것 사이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지며 자연의 조화, 즉 자연스러움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성은 자연의 교훈을 모델로 삼아 형성된 조형법칙이다.

한국 전통건축에 있어서 공포의 조형적 특성은(Fig. 29.) 첫 번째, 반복성으로 공포는 수직과 수평선, 짧은 선과 긴선 들이 반복되는 선의 반복과 작은 덩어리 등의 규칙적인 쌓임 같은 식으로 구성되는 부분 부분의 반복, 하나의 중심포가 여러 개 나열되는 식의 다포에서의 반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단 일체 반복은 독특한 조형미를 형성한다.

둘째, 균형성은 공포의 독특한 조립 방식에 의한 필연적 결속 상태에서 오른 쪽이나 왼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단위 하나하나의 짜임으로 지붕의 하중으로 균등하게 받치도록 되어있다. 공포의 균형미는 비대칭의 독특한 구성과 단순해 보이는 느낌, 혹은 약간의 불균형과 관련부분들의 중심을 벌여난 위치의 변화로 그 절묘함이 더욱 강조된다.

셋째로 통일성은 조형예술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통합이며, 결합,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공포의 정교한 짜 맞춤은 장인의 정신과 육체의 통일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규칙적이고 정교한 기하학적인 각 부재들은 정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어 기능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넷째로 단순성은 발달된 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조형체로서의 건축에서 단순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이 1992).

전통가구는 선과 면 구성으로 이루어진 단일 요소들은 반복과 대칭적 표현으로 한국 전통건축의 구조와 같이 질서와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고 상, 하, 좌, 우로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비례미를 추구하는 면분할은 대칭형태의 목리문양으로 우리의 자연주의적 전통미를 보여준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열려진 형태와 닫힌 형태이다. 사방탁자와 같은 각재 가구들은 개방적이거나 열린 상자의 형태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반면 장롱과 같은 판재가구들은 밀폐되어 폐쇄적인 형태로서 신비스러움을 자아낸다. 더욱이 가구는 공방에서 제작해 판매하기 보다는 각 가정에서 목수를 불러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정된 나무를 놓고 유효적절하게 골재와 판재 등을 구상해야한다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규격 상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또 각목수의 개인적 취향과 척도에 의해 가구가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그 나름대로의 감각에 의한 비규격화의 형태적 특징을 갖는다.

가구 배치에 있어서 조선시대는 남녀유별과 내외관념이라는 유교적 사고방식에 따라 주택구조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거주하는 사랑방과 여성들이 생활하는 안방으로 구별하였으며 그곳에 놓여지는 가구들도 사용자에 따라 종류와 조형적인 형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이 거처하는 안채는 사회적 규율에 엄매이고 또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을 찾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자녀를 기르고 가정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곳으로 항상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가구가 제작 되었다. 따라서 안채의 내실가구는 사랑채의 간결한 선과 검소한 분위기와는 달리 밝고 화사한 것이 특징이다. 안방가구로는 장, 농, 반닫이, 등 의류수

납용과 귀중품 보관용의 함과 각계수리, 바느질용 반진그릇, 몸을 단장하게 쓰이는 빗집, 좌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안방가구에는 개인과 가정의 부귀와 수복을 소망하던 조선조 여인들의 미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Fig. 31.).

사랑채는 남성의 생활공간으로서 선비들이 학문을 닦고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기에 문인적인 취향을 짙게 반영한다. 선비들은 청빈이란 유교적 덕목을 숭상하고 실천하였기 때문에 사랑방에 놓여지는 가구나 문방구들은 질박하고 격조가 높은 것을 취하였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간결한 선과 적절한 비례의 면 분할 또한 목재의 자연 상태를 담담하게 표현하여 자연의 목리를 최고의 미적표현으로 선택한 점은 모두가 선비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그 형태는 단순하지만 생활용품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한국인의 독창적인 조형을 이루어 한국 전통가구의 정수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선비 문화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랑방가구에는 서안, 경상 등의 책상류와 문갑 사방탁자, 서가, 책장, 연상 등의 문방가구와 각종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문서함, 책을 넣어두는 크고 작은 궤, 상비약을 넣어두는 약장, 귀중품을 보관하는 각계수리장과 의대를 보관하는 의걸이장도 포함 한다 (Fig. 32.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는 무거운 유기그릇이나 사기그릇을 사용하였기에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재료로서 가구를 만들었다. 또한 전통적인 가옥 구조에서 식사를 하는 방들이 부엌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아 나르거나 놓고 먹는 상의 종류가 다양하게 발달된 것이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부엌가구는 뒤주, 찬장, 찬탁, 소반 등이 있으며 부유한 양반의 대저택에는 공간세간과 사당에서 사용되어지는 가구등도 있다(Fig. 33.).

전통건축의 기하학적 조형형태는 가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전통가구의 장(Fig. 34.), 책장(Fig. 35.),사방탁자(Fig. 36.), 등의 면구성비를 보면 황금비와 자구근비, 장방형의 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가식 없는 단순한 의장과 건실한 구조미는 자연미를 바탕으로 한 적당한 비례와 간결한 직선구조미는 유례가 없을 만큼 새롭다. 이는 기하학적 형태를 “간결한 선, 명확한 면”으로 집약할 수 있는 것이다.(박 1987). 이러한 조형적 요소는 단정하고 간결한 면 분할로써 한국 전통건축의 외관에서 느끼는 선적인 기하학적 형태는(Fig. 30.) 가구에 응용되어 시각적 형태로서 조형적 구조미를 돋보이게 함은 전통가구와의 유기적 특징으로 들 수 있다.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aesthetic of architecture according to formative beauty					
					
Fig.25. Bomgjungsa	Fig.26. Chungamjung	Fig.27. Duksu Palace	Fig.28. Docklangdang	Fig.29. Painting	Fig.30. Suducksa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furniture according to formative beauty					

					
Fig.31.Furniture in inner room.	Fig.32.Furniture in guest room.	Fig.33.Furniture in kitchen.	Fig.34. Drawer for socks.	Fig.35. Bookshelf.	Fig.36. Square shelf.

<<http://gagu.culturecontent.com>>

## 5. 결 론

한국의 자연미는 자연을 경외하고 순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삶을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다.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는 언제나 자연을 노래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하는 의지가 두드러지며 자연과 동화된 생활을 미덕으로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사상적 기반들이 생겨났으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며 자연을 벗어나지 않는 무형의 틀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자연미는 지역적 따라 다양한 경우들이 나타난다. 삼면이 바다로 싸인 반도라는 지리적 환경에 의해 대륙의 침략적 기질도 아니며, 또한 섬의 다혈질 기질도 아닌 부드럽고 온화한 중성적 기질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후적인 환경에도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는 항상 변화에 의한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봄에 대한 너그움과 여름에 대한 화려함 가을에 대한 감사함과 겨울에 대한 여유로움을 골고루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기질과 성향은 지극히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감상적인 측면이 많이 발달되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자연미라는 것은 보다 다양한 감각으로 발전을 하여 왔으며 그 깊이 또한 한없는 변화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전통건축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억압하지 않는 규모로 건축되어 졌으며 공간적 특징으로서 외부공간은 기둥 도리 등의 목재가 갖는 노출된 나뭇결과 구조재의 선적인 표현과 입면을 대부분 차지하는 창호 등의 살 짜임으로 건물 전체가 선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또한 실내는 온돌로 인한 평좌생활로 천정이 낮고 비교적 좁아 가구들은 부담감을 덜고 보다 많은 생활공간을 확보하기위하여 낮고 간결하게 제작 되었으며 방 중심에 노여 지는 가구들도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동성 있게 제작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가구들은 낮은 키와 간결함에 따라 생기는 벽면의 여백과 조화되고, 또한 실내의 기물과도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 한국적 자연미에 단순하고 정선된 특유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전통건축미와 전통가구에 내재된 자연미는 재료가 지니는 물성에 의한 것과 구조적 결구방법으로서 그리고 외형의 조형미로서 유기적 특징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 전통건축에 표현된 선적인 자연미와 전통가구에 내재된 선과면의 자연미는 단지 시각적인 인식이나 형이상학적 인식이 아니라 자연의 조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아름답게 재현되며 무의식중에 자연이 만들어 낸 것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간에 유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6. 참고문헌

- 김미영. 2001. 자연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연구: 식물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 김삼대자. 1997. 전통 목가구. 대원사: 9.
- 김세중. 2005. 은유적 리얼리티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소통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 김원룡. 1968. 한국 미술사. 기문당: 4.
- 박숙영. 1987. 한국 전통 조형물에 나타난 기하형태의 변형.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20.
- 오광수. 1988.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60~66.
- 이명주. 2001. 현대 한국건축에 나타나는 전통적 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23. 52~53.
- 이용기. 1995. 목조건축과 목가구의 결구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7.
- 이승아. 1992. 한국목조건축의 조형성을 통한 도조표현 연구 : 기둥과 공포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16~24.
- 임석재. 2005.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 하우스: 247.291.
- 조요한. 2004.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305.
- 진유정. 2001. 한국고건축의 조형성을 응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8.
- 최운영. 1995. 자연 유기체의 형태적 특징의 고찰과 디자인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 가구사례와 디자인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14.
- 호암갤러리. 2002. 조선목가구대전.  
<http://gagu.culturecontent.com> (한국 전통가구-문화콘텐츠닷컴)